인문계열

국어 영역

SN · EBS 연계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5점]

(가)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都會)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중략)

객줏(客主)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鄭)형(兄)!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까'—연초 갑지—부치던 생각이 납니다. 베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둣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T)'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 봅니다.

(중략)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중략)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아'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회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활엽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 버린 이 산촌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MJB: 커피의 제품명.

– 이상, 「산촌 여정」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41-242쪽 수록)

(나)

어서—차라리—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치 길다.

동에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이 벌판은 어쩌자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 놓였을꼬?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중략)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소위 승합자동차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으니 도회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랴?

오관*이 모조리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답답한 풍속 가운데서 나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고 싶을 만치 답답해하고 지내야만 된다. (㉢_____)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한다. 아니 병석에서는 더욱 많이 생각하는 법이다.

*오관: 다섯 가지 감각 기관.

– 이상, 「권태」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43쪽 수록, 일부 빈칸 처리)

(1) (가)와 (나)를 <보기>와 같이 요약할 때, ⓐ와 ⓑ에 들어갈 2음절의 단어를 각각 (가)와 (나)에서 찾아 쓰시오. (단, ⓐ에는 '시골이나 산촌과 대비되는 도시'를 뜻하는 단어를 쓸 것) [3.2점]

<보 기>

두 글은 작가가 벽촌(산촌)에 머물며 겪은 경험과 내면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산촌의 고요함 속에서도 (ⓐ)에 남겨 둔 일과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각과 기억을 섬세하게 일깨우는 반면, (나)의 화자는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고 단조로운 환경 속에서 (ⓑ)이/가 박탈된 듯한 극심한 권태와 답답함을 느낀다.

(2) <보기>의 원칙 ④를 활용하여 (가)의 ㉠과 ㉡의 표기를 비교하는 설명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단, ㉠과 ㉡은 모두 외래어를 한글로 적은 것으로 보고, 원어가 무엇인지나 작품이 쓰일 당시의 표기 관행은 고려하지 않는다.) [4.2점]

<보 기>

(1)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표, 표기 세칙,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됨.

1)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중략)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bus: 버스(○), 뻐스(×)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2쪽 개념 설명에서 일부 발췌)

(3) ㉢ 뒤의 두 문장에서 '병석'에 있는 사람과 화자의 처지가 대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화자가 처한 상태와 그 상태가 주는 괴로움의 정도가 함께 드러나도록 ㉢에 들어갈 한 문장을 30~40자(공백과 문장 부호 포함)로 쓰시오. [4.1점]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0점]

(가)

달사(達士)*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속인(俗人)은 의심스러운 것투성이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달사라고 해서 어찌 사물을 쫓아다니며 눈으로 보았겠는가? 하나를 들으면 눈으로 열 가지를 떠올리고 열 가지를 보면 마음에 백 가지를 펼치고 보니 수많은 이상야릇한 것들은 도리어 사물에 붙은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 무궁무진하게 맞대응할 수 있다.

본 것이 적은 사람은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기준 삼아 학의 긴 다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사물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의심해 화를 내며 한 가지라도 생각과 다르면 만물을 모조리 비방한다.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날개보다 더 검은색이 없긴 하나 얼핏 옅은 황금색이 돌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인다. 햇볕이 비추면 자주색으로 솟구치다, 눈이 어른어른하면 비취색으로도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저 사물은 본디 정해진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 버리는 것이다.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랴?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 버린다. 슬프다!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한 것도 충분한데 다시금 까마귀를 갖고 세상의 온갖 색을 고정하려 하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다. 그러나 누가 다시 이른바 푸르고 붉은 색이 검은색 안에 깃들어 있는 빛깔인 줄 알겠는가?

(중략)

나의 조카 종선은 자가 계지(繼之)인데 시를 잘 썼다.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詩體)를 두루 갖추었으니,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된다. 성당(盛唐)*의 시인가 싶어 보면 어느새 한위(漢魏)의 시체를 띠고 또 홀연 송명(宋明)의 시체를 띤다. 겨우 송명체라고 말하려니 다시 성당의 시체를 띠고 있다.

아!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기는 것이 또한 너무 심하다. 그러나 계지의 동산에는 까마귀가 문득 푸르렀다 붉었다 한다. 세상 사람들은 미인을 재계하는 모습이나 불상처럼 만들고 싶어 하나, 손뼉 치며 추는 춤과 사뿐사뿐한 걸음걸이는 날이 갈수록 가볍고 요염해지고 쪽 찐 머리를 감싸 쥐거나 치통을 앓는 모습은 모두 각기 자태를 갖추고 있으니, 그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이 심해질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세상에 달사는 적고 속인은 많다. 그러니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그런데도 말을 그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아! 연암 노인이 연상각*에서 쓴다.

*달사: 이치에 밝아서 사물에 얽매여 지내지 않는 사람.
*성당: 당나라 때 한시가 융성했던 시기를 이름.
*연상각: 연암 박지원이 안의 현감 시절 관아 안에 지은 누각 중 하나.

– 박지원, 「능양시집 서」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74–275쪽 수록)

(나)

곽상은 진나라의 철학자로, 『장자』 주석을 통해 도가 사상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장자』의 핵심 사상인 '제물론(齊物論)'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제물론은 '만물은 존재 그 자체로 우열이 없다.'라는 장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물이 도(道) 앞에서 차별이 없으며, 옳고 그름·귀하고 천함·생과 사와 같은 구별 또한 상대적임을 강조한다. 즉 인간이 설정한 가치나 규범은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며, 존재는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곽상은 이러한 제물론의 사상을 이어받아, 모든 존재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 없이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립적 실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만물이 조물주나 근원적인 '무(無)'에 의존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입장은 후대에 '독화론(獨化論)'으로 불렸다. 독화론에 따르면, 존재는 타자나 인과적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변화하며 자신의 본성을 완성해 나간다. 그는 세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 _____)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 본성을 성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곽상은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 왕필의 일원론적 존재관을 비판하였다. 그는 왕필이 주장한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해석이 세계의 다양성과 개체의 자율성을 간과한다고 보았다. 왕필의 '무 일원론'이 모든 존재를 단일한 근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 반면, 곽상은 모든 존재는 단일한 근원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존재들은 각자의 본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를 절대적 실체라기보다, 존재들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서로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배경적 조건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존재의 본질은 하나의 통일된 실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각 존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개별성과 그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도(道)' 또한 고정된 근본 실체라기보다, 존재들 간의 상호 작용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자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23–224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1) (가)에서 사물에 본래 정해진 색이나 기준이 없다고 보며 만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는 관점과 상통하는 사상으로, 만물이 도(道) 앞에서 차별이 없으며 존재 그 자체로 우열이 없음을 강조하는 (나)의 핵심 사상을 찾아 3음절로 쓰시오. [2.5점]

(2) (나)의 논지에 비추어, 세계의 유동성과 다양성에 대응하여 지녀야 할 태도가 드러나도록 ㉡에 들어갈 내용을 25~35자(공백 포함)로 서술하시오. 앞뒤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쓰되, 원문과 표현이 달라도 (나)의 논지에 맞으면 인정한다. [3.0점]

(3) (나)의 곽상이 제시한 관점을 바탕으로, (가)의 글쓴이가 밑줄 친 ㉠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詩體)를 두루 갖추었으니'라고 조카 계지의 시 창작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3.5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에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능한다. 공공 단체에는 공공 조합이나 공법상 재단 등이 포함된다. 국가의 일반 행정 조직과는 달리,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도 있는데, 이를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이라고 부른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기관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하고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한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 중에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 있는데,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그 설립과 폐지는 (㉠_____), 독립성과 공정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는다.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감사원은 특정 권력 기관이나 정당,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되는데,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직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교육부, 국토 교통부 등의 일반적인 행정 부처와는 구별된다.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감사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특별 공공 행정 조직 중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공법상 법인이 존재한다. 법인격이란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법인격을 가진 조직은 계약 체결, 재산 소유,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행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공법상 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영리 추구가 아니라 공익 실현, 공공질서 유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간인이 설립하는 사법상 법인과 구별된다. 국민연금 공단이나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은 특별 공공 행정 조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공법상 법인이다.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대체로 공법상 법인이다. 공공 조합은 일정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조직으로, 사단 법인처럼 다수의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사단 법인과 달리, 공익 실현, 공공질서 유지 등의 법적 책무를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대표적인 공공 조합인데, 공공 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은 조합의 임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에 정한 절차에 맞게 국가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 공법상 재단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가나 공공 기관이 출연한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공공 목적의 교육, 학술, 과학 기술 진흥 등 국가 정책상 중대한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국 연구 재단, 한국 언론 진흥 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법인은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지니지만,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으면서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높은 자율성과 재정적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법상 재단과는 구별된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기능과 재정 구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규제·감시형, 서비스 제공형, 정책 집행형으로 나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 전기·도로·수도·철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은 (㉢)이다. 정책 기획이나 연구, 교육 등 간접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은 정책 집행형이다. 한편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따라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을 나눌 수도 있다.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원처럼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직은 정책적 독립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지만 재정 효율성과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의 경우는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며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재정 유연성이 높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140–141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1) ㉡과 ㉢에 각각 들어갈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유형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2) 윗글의 논지에 비추어 ㉠에 들어갈 내용을 30자 내외(공백 포함 20~40자)로 서술하시오. [4.5점]

(3) 다음 <보기>의 [A], [B] 조직이 윗글에 제시된 설립 형태(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조직/구성원의 인적 결합에 바탕을 둔 조직)에 따른 가장 구체적인 유형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3.0점]

<보 기>

[A] 정부가 미래 기초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과 연구 지원을 위해 공공 기금 1조 원을 기본 재산으로 내놓아 설립한 '한국학술○○'은 출연된 재산 자체를 기반으로 독립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B]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회계 투명성과 공정한 감사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 회원 전원이 결합하여 설립한 '한국공인회계사○○'은 국가의 감독 아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0점]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완전 정보 상태가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 주체들은 불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보험 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게 된다. 그 결과, 보험 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에 직면하게 되어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시장 참가자들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신호 발송이다. 신호 발송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을/를 알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에서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교육 수준은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고 높은 임금을 받을 유인이 있다.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신호를 보내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여 거래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가 성립되는데, 이를 신호 발송 균형이라 한다.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가령,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낮아야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예이다.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한다.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다.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한 것은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정보가 부족한 쪽은 선별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선별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숨겨진 (㉠)을/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보험 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을 선택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보험 회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신호 발송, 선별 외에 역선택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평판 구축이 있다.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114–115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1)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2.7점]

(2) 다음 <보기>의 [가], [나], [다]에 나타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윗글에서 제시된 역선택 극복 방안(신호 발송, 선별, 평판 구축)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그 방안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도록 윗글의 논지에 따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6.3점]

< 보 기 >

[가] 중고 전자제품 판매업자 갑은 자신이 매입해 판매하는 기기의 무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 전문 검사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50개 항목의 정밀 성능 검사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나] 시중 은행 을은 신규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부도 위험을 정확히 알기 어렵자, '금리가 낮은 대신 높은 담보를 요구하는 대출'과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금리가 높은 대출'이라는 두 가지 상품을 설계하여 신청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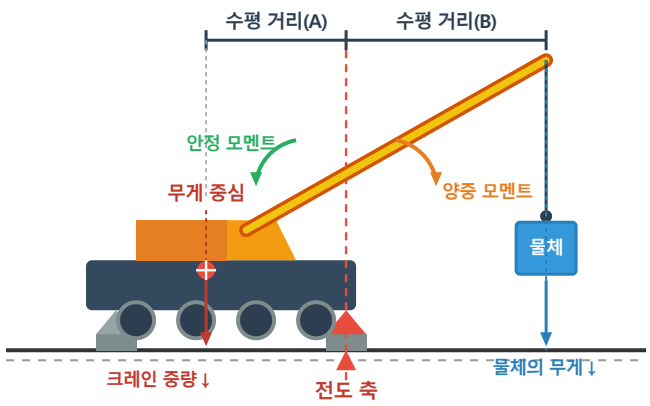
[다] 외주 용역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전문 번역사 병은 의뢰인들에게 장기간 수준 높은 결과물을 성실히 제공하여, 수백 건의 이용자 만족 평가와 최고 등급 인증 배지를 계정에 축적함으로써 신규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이동식 크레인은 바퀴에 타이어나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동력을 사용하여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장비이다.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하면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무거운 자재와 부품을 들어 올리고 설치할 수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동식 크레인에서 인양하는 물체를 지지하는 긴 팔 모양의 (㉠)은/는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도달 범위와 높이를 결정한다. 붐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압식 붐과 격자식 트러스를 사용하는 격자형 붐 등이 있다. 붐에는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보조 붐을 부착하기도 한다. 크레인은 대부분 물체를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 걸고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 꼬아 만든 줄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해 들어 올린다. 이때 와이어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크레인의 붐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복이라고 하는데, 일부 크레인은 붐과 보조 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어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넓다. 붐이나 보조 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선회라고 한다. 유압식 붐이 있는 크레인은 붐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도 있다. 아웃트리거는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로, 크레인을 고정해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한다.

〈그림〉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인 '양중 능력'은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크레인 설계와 크레인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힘의 불균형으로 크레인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그림〉에서 전도 축을 기준으로 크레인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과 크레인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전도 축까지의 수평 거리(A)를 곱한 '안정 모멘트'가 들어 올리는 물체의 중심축부터 전도 축까지의 수평 거리(B)와 물체의 무게를 곱한 '양중 모멘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레인은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전도 축은 크레인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축을 의미한다. 크레인의 전도는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전도 축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크레인의 (㉠) 끝단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하여 전도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크레인 안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_____)는 것이다.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위해 크레인의 (㉠) 길이와 (㉠)이/가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하여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과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그 외 부가되는 하중을 합한 값을 '양중 능력 표'로 정리해서 참고한다.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로 임계 하중*의 75~85% 수준이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들어 올린 물체가 흔들려 작업 반경의 변동 등으로 전도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동식 크레인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들도 있다.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전도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고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크레인 받침목을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에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평형추를 설치해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켜 크레인이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 임계 하중: 구조물이나 부재가 파괴 또는 과도한 변형과 같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한계로 생각되는 하중.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186–187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1)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2.1점]

(2) 윗글을 참고하여 안정 모멘트와 양중 모멘트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에 들어갈 내용을 20자 내외(공백 포함 15~30자)로 쓰시오. [5.2점]

(3) 〈그림〉에서 처음에는 안정 모멘트와 양중 모멘트가 같았다. 물체의 무게를 처음의 4/5로 줄이고 수평 거리(B)를 처음의 3/2배로 늘렸을 때, 크레인 중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모멘트를 다시 같게 하려면 수평 거리(A)를 처음의 몇 배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단,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2.2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5점]

(가)

야스퍼스는 일상에서 접하는 일반적 상황과 달리 인간이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변경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근원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였다. 죽음, 고통, 투쟁, 죄책감이 이에 해당하는데, 야스퍼스는 이러한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다. 한계 상황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살아가는 동안 인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을 압도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자신이 결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러한 한계 상황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행동의 근거에 회의를 느끼게 되며, 삶의 가장 내면적인 근거가 흔들리는 불안을 감지하고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한계 상황의 경험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한계 상황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좌절하게 만드는 한계 상황을 단지 회피하려고만 하는 인간은 한계 상황의 배후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인간이 이러한 한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을 압도하는 한계 상황은 좌절이라는 깊은 아픔을 가져다주지만, 이러한 좌절은 인간이 초월자를 감지하는 계기가 된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실존하는 것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결코 완결된 전체가 아니며, 조화 있는 총체적 구조를 지니거나 명확한 인과의 틀 속에서 합목적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계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초월자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 인간 이상의 것, 인간을 넘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존재가 바로 초월자이다. 초월자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거나 규정될 수 없고, 표상을 통해 어떤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추론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초월자와의 만남 없이 인간은 실존할 수 없으며, 인간은 한계 상황의 경험을 통해서만 초월자 앞에 설 수 있다.

초월자는 오직 한계 상황을 자각하고 자신의 실존을 찾고자 하는 인간, 즉 가능적 실존에게만 비대상적 존재로서 나타나는데,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암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암호는 초월자가 가능적 실존에게 말을 걸어오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암호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지평 저 너머에 있는 초월자를 지시하고 해명해 주는 언어이다. 암호는 보편타당한 것으로 경험되거나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현실적인 언어가 아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초월자는 오직 암호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암호를 해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월자의 암호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될 수 없는 다의적인 것이다. 이러한 암호는 실존이 되려고 노력하는 인간에 의해서만 각자의 방식으로 해독된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암호 해독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83쪽에서 발췌

(나)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288쪽 수록)

(1) <보기>는 (가)를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4음절의 어구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3.7점]

<보 기>

(가)의 '가능적 실존'은 피할 수 없는 (ⓐ)을/를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초월자가 건네는 암호를 해독하여 참된 실존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주체이다.

(2) <보기>는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화자가 지닌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3어절의 시구를 (나)의 한 행 안에서 찾아 쓰시오. (단, 시구 끝에 붙은 조사는 빼고 쓸 것) [5.8점]

<보 기>

(가)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이나 고통과 같은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함으로써 유한성을 깨닫고 참된 실존을 모색하게 된다. (나)의 화자 역시 역사적 비극과 부끄러운 삶을 자각하고 거울을 닦는 치열한 성찰을 통해, 고난의 운명을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가는 (ⓑ)을/를 거울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0점]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비극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는데,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을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고 비극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는 비극의 6가지 요소로 플롯, 인물의 성격, 작품에 담긴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를 제시하고, 그중 행위나 사건의 구성을 뜻하는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갖춰야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고,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의 인과적 결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살인, 폭력 등의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사건 제시와 관련한 플롯의 핵심 요소로 반전과 인지를 제시하였다. (㉠)은/는 상황, 즉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정반대로 급변하는 것으로서,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은/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분하였는데,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플롯이라고 구분하고, (㉢)이/가 더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극의 인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신분의 인물로서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야 하고, 악행이나 악덕이 아닌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로 인식될 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면 연민을 느끼고,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다. 카타르시스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대표적 해석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윤리학적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관객의 감정 중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부분을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것으로 본다. 평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민, 공포 등의 감정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함으로써 감정을 맑게 만들어 도덕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해석은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정제 및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정신 분석학적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병적인 감정의 분출로 본다. 이 해석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울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억눌려 있던 감정을 비극의 인물에 투사하여 분출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지적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작품 이해의 형성으로 본다. 이 해석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구한다고 보고,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고 본다.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던 플롯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관객들은 인지적 즐거움을 얻고 본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70–71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1) ㉠, ㉡, ㉢에 각각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단, ㉢은 윗글에 제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근거로 판단할 것) [4.5점]

(2) 윗글에 제시된 플롯의 핵심 요소 가운데 적절한 개념을 활용하여, <보기>의 ⓐ에 나타난 시상 전개 방식과 그 효과를 40자 내외(공백 포함 35~45자)로 쓰시오. [5.5점]

< 보 기 >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81–82쪽 수록)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0점]

(가)

바르트는 소쉬르의 이론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소쉬르는 언어를 (㉠)(으)로 보았고, 기호는 음성이나 문자 등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형태인 '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적 내용인 '기의'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말은, 말소리 혹은 문자 형태로 주어지는 기표와 '줄기와 가지를 가진 목질 식물'이라는 기의가 결합한 하나의 기호이다. 소쉬르는 이러한 기호의 구조에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특정 기표가 반드시 특정 기의를 가리켜야 할 필연성은 없으며, 다만 사회적 ㉡약속과 관습에 의해 그렇게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A>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역시 언어와 마찬가지로 (㉠)(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를 '1차 기호 체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1차 기호 체계는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생성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기호가 다시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의가 덧붙여져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형성된 '2차 기호 체계'를 '현대의 신화'라고 하였다. '현대의 신화'는 원래의 의미에 사회적·이념적 함의가 덧씌워져 형성된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현대의 신화'가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현대의 신화'는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하고 재구성한 의미를 마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인 것처럼 제시한다. 바르트는 이를 '자연화'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그 구성 과정을 감춘 채 스스로를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드러내는 현상이다. 이때 '현대의 신화'는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하여 수용자가 그것을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전통적 선전처럼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기호를 통해 은밀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르트는 프랑스의 한 잡지 표지를 예로 들었다. 이 표지에는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기호 전체가 2차 기호 체계에서는 하나의 기표로 작동하고, 여기에 '프랑스는 인종 차별 없는 관대한 국가'라는 기의가 덧붙는다. 이렇게 표지 이미지는 프랑스의 다문화 포용성, 흑인의 국가 충성심, 프랑스의 정의로움 등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신화가 된다.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이미지가 전달하는 사회적·이념적 의미는 독자에게 마치 본래부터 당연한 사실처럼 수용되는 것이다.

–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83–84쪽에서 발췌(일부 빈칸 처리)

(나)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쏘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
(EBS, 『 2027학년도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 55쪽 수록)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1)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3.9점]

(2)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2음절의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2.4점]

(3) <A>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대'가 1차 기호 체계에서 지니는 의미와 그것이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통해 2차 기호 체계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구분하여 60~100자(공백 포함)로 설명하시오. [5.7점]

인문계열

수학 영역

SN · EBS 연계

9.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 $y=\log_2(x-n)$, $y=\log_4(x+n)$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m이라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m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3.5점]

(2) 100 이하의 자연수 n 중에서 m이 자연수이고, 두 곡선 $y=\log_2(x-n)$, $y=\log_4(x+n)$ 및 직선 $y=4$로 둘러싸인 도형의 둘레와 내부에 있는 점 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1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4.5점]

10. 4 이하의 자연수 k와 두 양수 a, b에 대하여 $-\frac{2\pi}{b}\le x\le\frac{2\pi}{b}$에서 정의된 함수 $f(x)=a\sin\left(bx+\frac{k}{2}\pi\righ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2점]

(가) x에 대한 방정식 $f(x)=2$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고, 네 실근의 합은 π이다.

(나) 부등식 $f(x)\ge 2$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에 속하는 구간들의 길이의 합은 $\frac{2\pi}{3}$이다.

방정식 $f(x)=2$의 네 실근을 x_1, x_2, x_3, x_4 $(x_1<x_2<x_3<x_4)$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상수 a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3.0점]

(2) k의 값을 구하시오. [4.0점]

(3) x_4-x_1의 값을 구하시오. [5.0점]